# Global News

## 1. ESG 정보공개에 관한 최근 동향[52)]

□ FUNDEUROPE의 Romil Patel 기자는 ESG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보도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ESG 정보공개의 중요성

○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공개는 표준화된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음

- KPMG의 2017년 CR보고서에 따르면, 50개 국가의 4,900개 회사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함[53)]

○ 지속가능성 보고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ESG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ESG 데이터에 대한 최근의 관점

○ 기업의 ESG 정보공개는 투자자의 수요에 따른 것이지만, 투자자는 단순 양적인 데이터보다 질적인 의문을 던져야 하며, ESG 리스크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의 목적을 측정해야 함[54)]

○ ESG 데이터는 표준화되지 않아 각 측정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기업이 공시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순수한 재무적 수치에 비해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55)]

- 데이터 조작도 의심될 수 있으므로, 좋은 ESG 투자를 위해서는 단기적 데이터만 관찰하기보다 장기적 가치창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여야 함

□ 신흥 시장에서의 ESG 정보공개

○ 유럽에서는 EU Directive를 통해 중요한 비재무정보에 대해 공시가 의무화됨

○ 그러나 신흥시장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ESG정보의 질이 낮아 ESG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56)]

- 추후 기업의 ESG 관행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운용자산에서 제외를 검토할 수 있음

52) 이 보고서는 FUNDEUROPE, 2018, "ESG REPORTING: Staying on the shopping list", http://www.funds-europe.com/esg-report-2018/esg-reporting-staying-on-the-shopping-list의 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53) KPMG, 2017,"The road ahead : The KPMG Survey of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ing 2017" http://kpmg.com/crreporting
54) Andrew Parry, head of sustainable investing at Hermes Investment Management
55) Johnny Russell, global equities protfolio manager at Nikko Asset Management
56) Petra Pflaum, chief investment officer for responsible investments at DWS

□ 금융산업에서의 관점

○ 임팩트 투자는 주로 개발은행, 교회, 재단 등에서 하였으나, 이제는 금융산업의 화두가 되고 있음

○ 약 450억 유로를 운용하는 스웨덴 국부펀드인 AP7은 올해초 KBI Global Investor(KBIGI)에 환경 관련 자산운용을 위임함

- AP7은 먼저 75백만유로를 KBIGI의 그린 임팩트 자산운용에 위임하였으며, 위임 규모를 150백만 유로로 증액할 예정임

○ 임팩트 투자에 있어, ESG 정보의 측정은 또다른 관점을 가지게 됨

- 임팩트 투자 시에는 SDGs 등 사회적 효용에 대한 측정방법이 필요하며, 이에는 ESG 정보 공시가 도움이 됨[57)]
- KBIGI 책임투자 관리자인 Eoin Fay에 따르면,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와 SDGs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하며, 향후 2~3년간 SDGs 관련 정보가 기업 보고에 있어 늘어날 것이라는 KPMG의 보고가 이를 뒷받침함

57) Johan Floren, head of ESG at AP7